

간세포암 환자에서 간동맥화학색전술 후 새로운 예후체계에 관한 연구

인하의대내과, 방사선과† 박상준*, 정석, 이진우, 권계숙, 이은행, 조현근, 김범수, 김형길, 신용운, 김영수, 조순구†

간세포암의 치료로는 근치적 절제술이 원칙이나, 진단 당시 간경변이 동반되어있고 다발성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비수술적 치료법의 하나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간동맥화학색전술은 특정 대상의 간세포암 환자에서 생존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있다. 따라서 색전술 시행 시 정확한 대상선정이 치료 결과와 향후 치료 방향의 설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며, 색전술 시행 후 생존에 유의한 예후인자들과 예후체계의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6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 받은 총 8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임상적 특징, Child-Pugh stage, CLIP score(The Cancer of the Liver Italian Program), 생화학적 인자, 종양 인자, 그리고 첫 색전술 후 리피오돌 섭취유형을 비교 분석하여, 생존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후인자들을 알아보았으며, 색전술 시행 후 생존에 유의한 새로운 예후체계(Post-TACE Prognostic System; PTPS)를 만들어 CLIP score, Child-Pugh stage와 생존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새로운 예후체계는 전여간 기능 정도와 종양의 특징과 색전술 후의 치료반응정도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Child-Pugh stage, 혈청 알파태아단백 수치, 종양의 최대직경, 종양의 유형, 간문맥 혈전, 첫 색전술 후 리피오돌 섭취유형의 6가지로 구성하여 각각 변수들마다 0, 1, 2로 점수화 하였다. 결과) 1) 단변량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인자들로는 혈청 알파태아단백 수치, 간문맥 혈전, 종양의 최대 직경, 종양의 유형, 첫 색전술 후 리피오돌 섭취유형, 양면 침범이었다. 2) 다변량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인자들로는 종양의 유형, 간문맥 혈전의 유무 그리고 리피오돌 섭취유형이었다. 3) 각각의 예후 점수체계에 따른 생존양상의 비교에서 Child-Pugh stage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p=0.7381$), CLIP score($p=0.0001$)와 PTPS($p=0.0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각각의 점수마다 가장 일관성 있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PTPS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PTPS는 색전술을 시행한 간세포암 환자에서 기존의 예후체계보다 더 간편하고, 생존 양상에 더욱 유의한 새로운 예후체계로 생각되며 향후 더 많은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젊은 성인에서 흡연에 의한 상완동맥 내피기능의 변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이상철*, 변정득, 정호석, 신원용, 은영근, 김철현, 최태명, 현민수, 김성구, 권영주

목적: 혈관내피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죽상동맥경화, 나이, 호르몬, 혈중 지질치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젊은 성인에서 흡연이 혈관내피기능에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제시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건강한 20-30대의 정상인 22명을 대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군으로 나누어 상완동맥의 혈류속도와 혈관직경을 측정한 후 혈류의존성 혈관이완능(Flow mediated dilatation)과 nitroglycerin 0.6mg을 경구로 설하 투여한 후의 혈관직경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성적: 상완동맥의 혈류의존성 혈관이완능은 흡연자군에서 평균 $5.6 \pm 3.0\%$ 의 증가를, 비흡연자군에서 $6.8 \pm 2.8\%$ 의 증가를 보였고($p=ns$), nitroglycerin 투여 후의 상완동맥의 직경변화는 흡연자군에서 $16.0 \pm 6.3\%$, 비흡연자군에서 $15.5 \pm 4.2\%$ 의 증가소견을 보였다($p=ns$). Flow mediated mean flow rate는 흡연자군에서 31.6 ± 10.8 cm/sec, 비흡연자군에서 26.0 ± 10.8 cm/sec로 측정되었고($p=ns$), nitroglycerin induced mean flow rate는 흡연자군에서 26.67 ± 12.5 cm/sec, 비흡연자군에서 21.5 ± 7.4 cm/sec였다.($p=ns$)

결론: 젊은 성인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혈류의존성 혈관이완능과 nitroglycerin induced dilatation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